

고강도 처방... 금융 불안은 여전

韓銀, 금리 0.75%p 인하 '충격 요법'
 주가 소폭 상승·환율 급등 약효 미미

한국은행의 과격적인 금리 인하 등 금융당국의 고강도 대책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3·10·11면> 한은의 '충격 요법'에도 원·달러 환율은 10년5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고, 코스피지수는 장중 900선이 무너지는 등 '플러코스트' 장세를 연출했다.

한은은 27일 긴급 임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5.0%에서 4.25%로, 0.75%포인트 인하했다. 한은이 임시 금통위를 통해 기준금리를 내린 것은 2001년 9·11 테러 당시 이후 처음이며, 금리 하락 속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은은 또 총액한도대출 금리를 현행 3.25%에서 2.5%로 낮추고, 은행채와 특수채 5조~10조원을 환매조건부채권(RP) 방식으로 사들이기로 했다. 이 밖에도 한은은 수출기업이 '키코(KIKO)' 등 통화옵션 상품에 가입한 경우 은행의 외화대출을 허용키로 하는 등 '충격 요법'에 가까운 초강수를 뒀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다. 코스피지수는 장중 5%에 달하는 변동성을 보이며 한때 900선을 깨고 892.16까지 내려앉았다. 코스피가 장중 900선이 무너진 것은 2005년 1월 14일 이후 처음이다.

코스피는 장 후반 5천억원이 넘는 연기금이 유입되면서 7.70포인트(0.82%) 오른 946.45로 마감했지만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했다. 무엇보다 외국인은 이날도 3천억원 이상의 주

식을 팔아치우며 매수세를 자극했다. 코스닥지수는 15.49포인트(5.60%) 하락한 261.19로 마감돼 사상 최저치(276.68)를 또다시 갈아치웠다.

“충분하고 확실하게 유동성 공급”

李 대통령 시정연설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정부는 시장이 불안에서 벗어날 때까지 선제적이고 충분하며 확실하게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며 “문제는 오히려 심리적인 것으로 실제 이상으로 상황에 과잉반응하고 공포심에 휩싸이는 것이야말로 경계해야 할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이 대통령은 이날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통해 “단언컨대 지금 한국에 외환위기는 없다”면서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가 더 걱정하

는 것은 세계금융 위기가 실물경제에 침체로 파급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 지출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수출증가 둔화에 대응해 내수를 활성화하는 선제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사회간접자본을 늘리고 고용효과가 큰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 지원도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외환보유고는 2천600억 달러에서 2천400억 달러로 약 8% 감소하는데 그쳤으며, 4분기부터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면 외환 상황은 훨씬 호전될 것이고 원화 유동

성도 금융통화당국이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회사든, 일반 기업이든 흑자 도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엄중한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정파의 차이를 넘어 국익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줘야 국민들도 기꺼이 동참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의 남은 회기를 비상국회의 자세로 임해 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밀그림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1998년 5월19일 이후 10년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원·엔 환율도 이날 100엔당 51.08 원 폭등한 1,546.09원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내수 위축과 금융시장 불안을 감안해 추가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금융 위기’ 여수산단 가 보니...



환율불안에도 수출물량이 급감하면서 전남산업의 심장으로 불리는 여수산단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여수산단의 야경이 우울함을 더해주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고환율에 수출 물량 급감 공장 가동률 축소 잇따라

글로벌 금융위기가 국내 실물경제로까지 확산되면서 전남지역 산업생산의 70%를 차지하는 여수국가산업단지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미 상당수 입주업체들이 공장 가동률을 낮췄고 이에 생산계획을 축소하는 업체들도 속출하고 있다.

27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여수지사에 따르면 올해 9월 중 여수산단 내 86개 석유화학업체 공장가동률은 94.2%로, 지난해 동기 99.0%에 비해 4.8% 포인트 추락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최근 수출물량이 급감하면서 각 업체마다 계획생산량을 축소해왔기 때문에 9월 중 실질 공장가동률은 90%를 훨씬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86개 석유화학업체들은 2007년 말 기준 182개 여수산단 입주업체 매출의 99%를 웃돌고 있다.

실제로 A사의 경우 지난 8월부터 일부 생산라인의 가동률을 전달에 비해 80% 수준으로 낮췄는가 하면, T·L사 등도 잇따라 가동률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K사 관계자는 “환율 인상에다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중국·일본 등지의 수요 감소로 채산성이 악화돼 일부 생산라인의 가동률을 축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장가동률 뿐만 아니라 생산·수출에서도 ‘빨간불’이 켜져 지역 경제에 적지않은 파장이 우려된다. 여수산단 입주업체의 생산액은 지난 7월 6조6천539억원으로 최고를 기록했다가 8월 5조9천75억원(전월대비 -11.2%), 9월 5조6천625억원(-4.1%)으로 크게 줄었다. 수출액 역시 7월 27억3천200만 달러, 8월 23억2천200만달러(-15.2%)로, 9월 21억5천400만달러(-7.2%)로 지속적인 내림세를 보였다.

이처럼 여수산단 전체가 위기에 빠지면서 ‘일부 업체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S사 관계자는 “상당수의 운송업체들이 인원을 감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아직 입주업체 가운데 구조조정을 했다는 얘기를 듣지는 못했지만, 소문이 무성할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여수=이종태·박양규기자 jilee@

‘쌀 직불금’ 수령 공무원 광주·전남 4,772명 신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쌀 직불금’ 수령 자진 신고 마지막날인 27일 광주시에서 546명, 전남도에서 4천226명 등 모두 4천772명이 신고를 했다.

<관련기사 4면> 광주시에서는 본청과 산하 공공기관 264명, 5개 자치구 282명(본인 수령 190명, 가족 수령 356명)이 자진 신고했다. 시에서는 자신이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했다고 ‘고백’

한 직원이 3~4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쌀 직불금 수령액은 모두 10억6천6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에서는 본청과 공사, 일선 시·군 소속 공무원 등 신고 대상 인원 2만35명(작년말 기준) 가운데 4천226명이 쌀직불금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본청에서는 3천357명 중 474명(본

인 87명, 가족 387명)이, 시·군에서는 1만6천678명 중 3천752명(본인 887명, 가족 2천865명)이 자진 신고했다.

이들의 쌀 직불금 수령액은 모두 125억6천600만원으로 도 본청 11억5천500만원, 시·군 114억1천100만원 등이다. 지역별로는 보성군이 28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안 276명, 순천 240명, 신안 217명, 영암 213명, 장성 210명 등의 순이다.

현재까지 시·도 신고자 가운데 국장급 이상 고위간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는 28일~오는 31일까지 공무원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부당 수령자에 대해서는 환수조치와 함께 징계를 할 방침이다.

/채희중·윤영기기자 chae@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디스크?
 수술없이 치료하는
 척추 추나 클리닉
 청연한의원

아모레퍼시픽이 꿈꾸던 그 아리따움이 태어납니다.

ARITAUM